

순천시, 전국 지자체 최초 위드 코로나 전환 선포

오늘부터 생활방역 준수하며 경제활동 최대한 보장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 '일상회복추진단' 운영

순천시가 25일부터 전국 지자체 최초로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고 선포했다.

허석 순천시장은 최근 현재의 생활방역은 엄격히 지키면서 경제활동은 최대한 보장해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시민들에게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허 시장은 10월 들어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22일 기준 백신접종률도 1차 78.0%, 2차 68.3%에 달해, 25일이면 위드코로나 대전환점인 전 시민 접종률 70%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허 시장은 "지난주 열린 순천시민의 날 행사, 달밤야시장 개장, 2021 NEXPO in 순천, 순천만잡월드 개장 등 많은 행사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확인했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일상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와 위대한 시민정신을 바탕으로 삼아 위드 코로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순천시는 이에 따라 30일 K-POP 공연, 11월 5일~8일 제7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11월 12일~13일 푸드&아트 페스티벌 등을 정상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민간공동대책위원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마련을 위해서 '일상회복추진단'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끝나지 않은 만큼 방역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중상, 경증 확진자 재택치료 지원 협업병원 지정, 재택치료지원팀을 운영하고 자가격리자·호흡기 질환자를 위한 안심진료서비스도 제공한다.



허석(왼쪽) 순천시장이 지난 22일 순천시청에서 생활방역 준수하며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겠다고 담화를 발표했다. <순천시 제공>

허석 순천시장은 "코로나19의 위험상황은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면서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마스크착용, 거리두기 등은 더욱 철저히 지켜야 하

며 11월까지 전 시민 접종률 85% 이상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백신접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

보성군, 약취저감 자율관리 강화 가축분뇨 관리 홍보책자 배포



보성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축산 약취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농가 자율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보성군은 가축분뇨 배출사업장 운영과 관리 준수사항이 포함된 홍보책자를 농가에 배포, 축산농가 스스로 사업장을 점검·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다.

홍보책자를 제작, 단순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축산 농가를 방문해 축산운영과 분뇨관리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사진> 축산단체(한우회 등)에서는 자체 교육에 활용토록 했다.

또 축산 농가에서 3년간 의무적으로 작성 보관해야 하는 가축분뇨와 퇴비·액비 관리대장 기재방법 등을 수록, 분뇨가 적정하게 처리돼 약취 저감 효과가 최대화 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를 당부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구례군 '귀농귀촌 1번지' 자리매김

최근 9년간 도시민 4천명 이주 농촌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저렴한 빈집 임대 시책 등 호평

구례군이 귀농·귀촌 정책에 힘을 쏟은 결과 최근 9년간 이사는 인구가 4000명 이상 늘는 등 귀농·귀촌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

구례군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9년간 2831가구, 4001명이 귀농·귀촌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360명, 2014년 336명, 2015년 461명, 2016년 685명, 2017년 251명, 2018년 386명, 2019년 526명, 2020년 523명이다. 올해 9월까지도 473명이 들어왔다.

최근 10년간 구례 인구가 2만5000~2만7000명 선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규모다.

구례군은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과 한 달 10만원에 빈집을 임대하는 제도 등이 귀농·귀촌 인구의 진입장벽을 낮춘 것으로 평가했다.

구례군 체류형 농업 창업지원센터는 2017년부터 해마다 35가구를 선발해 열 달 간 농촌 이해와 적응, 농업 창업과정 실습, 체험 등의 교육을 원스톱으로 진행한다.

서울시·국민연금공단과도 업무협약(MOU)을 맺고 은퇴자 교육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부터는 5년간 임대 조건으로 빈집소유자에게 리모델링 비용 2000만원을 지원하고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1년간 보증금 2백만 원 월 임대료 10만원으로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는 구례 정착 보급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지역에 21곳의 보급자리를 운영 중이다. 올해부터는 1~6개월간 체험 마을에서 임시로 거주하며 농촌 이해, 영농 실습, 지역민과의 소통 등을 두루 경험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주택 구입 또는 5년 이상 입차한 귀농·귀촌인에게 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귀농인에게 귀농인 정착 농업시설 지원사업으로 저운저장고, 하우스 설치, 농기계 구입 중 한 가지를 지원한다.

주택 및 농업창업 융자지원 사업으로 연이율 2% 금리로 농업 창업자금 최대 3억원까지, 주택

구입 또는 신축자금 7000만원까지 융자도 가능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책들을 추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구례군이 귀농·귀촌 정책에 힘을 쏟은 결과 귀농·귀촌의 메카로 떠오르고 있다.드론이 촬영한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일대. <구례군 제공>

구입 또는 신축자금 7000만원까지 융자도 가능하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파격적인 지원책들을 추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봉사왕 찾습니다"

광양시, 다음달 10일까지 후보자 추천... 12월 시상

광양시가 오는 11월 10일까지 '2021년 올해의 봉사왕' 수상후보자 추천을 받는다.

'올해의 봉사왕'은 2019년부터 선정했으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대가 없이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는 숨은 유공자 1명을 선정해 12월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 자격요건은 ▲공고일인 10월 20일 기준 5년 이상 계속해 광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자원봉사 경력 5년 이상이고 1365 자원봉사 포털 시스템상 봉사시간이 5000시간 이상 ▲올해 자원봉사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시민으로 자격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한다.

수상후보자 추천은 기관·단체장, 20인 이상의 연서로 개인이 추천할 수 있으며, 11월 10일 오후 6시까지 구비서류를 갖춰 광양시청 주민복지과 내 자원봉사센터로 방문접수하거나 이메일로 접수하면 된다.

수상자 결정은 광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기본 요건심사 후 심사위원회에서 엄정한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수상 대상자는 12월 제16회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 행사 시 상패를 수여받는다.

추천 양식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광양시자원봉사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여수시, '소상공인 손실보상제' 전담창구 운영...최대 1억 지급

27일부터 온라인 신청

여수시가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방역조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빠르고 편리하게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전담창구를 운영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상은 올해 3분기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및 방문판매, 실내체육시설 등 962개소와 영업제한을 받은 식당, 카페, 숙박시설 6348개소 등 총 7310개소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는 전남스포츠타센터 1층에 손실보상제도 전담창구를 마련했으며, 11월 3일부터 소상공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 및 접수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지난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보상액은 개별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되고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여수시 손실보상 전담창구(전남스포츠타센터 1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존의 베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컸다"면서 "이번 손실보상제도는 시에서 전담창구를 개설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신청 방법은 손실보상 누리집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 3일부터 여수시 손실보상 전담창구(전남스포츠타센터 1층)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기존의 베타목자금,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한 신청이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져 소상공인들의 불편이 컸다"면서 "이번 손실보상제도는 시에서 전담창구를 개설해 우리 지역 소상공인들이 보상을 원활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함께하는 100년 농협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조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H가성비국민건강보험 2004 (무배당)

가성비를 갖춘 합리적 선택!

심장질환 + 뇌질환 2대 혈관질환! 든든하게 준비하기! 진단비와 수술비를 동시에!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안한 환전·해외송금을 말하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운암백산지점 062)529-5335~6	쌍촌지점 062)381-6551~2	유동지점 062)512-1984~5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동운지점 062)528-2640~2
상무동지점 062)372-3741~2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농성지점 062)361-4472~4	운암지점 062)527-3295~6	비틀지점 062)381-1971~2
용산지점 062)526-0222~3	화정지점 062)372-0421~3	동림지점 062)513-8521~3	유덕지점 062)373-3235~6	운천지점 062)371-2772~3
지평지점 062)381-8212~3	로컬푸드직매장 062)364-8400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하나로마트드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